김다혜

안녕하세요 사람들에게 네잎클로버를 찾은 행운과 같은 특별한 경험을 느끼게 하고 싶은 디자이너 김다혜 입니다. 일상에서 접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세잎클로버 사이에서 네잎클로버를 찾은 특별한 기분을 느낍니다. 저는 예술에 대한 경계를 무너뜨리고 모든 일상 생활에 예술이 존재하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함을 디자인합니다.

Kim Dahye

Hello, I'm Kim Dahye, a designer who wants to make people feel a special experience like lucky to find a four-leaf clover. Experiencing things that you haven't encountered in your daily life, people feel special about finding a four-leaf clover among three-leaf clovers. I design the speciality that people can feel by breaking down the boundaries of art and making art exist in every daily life.

@da.\_.hx